



호세아 6장 7절: '아담처럼?' 또는 '아담에서처럼?'

- 히브리어 전치사 K'의 의미론적 용법

오민수(총신대)

1. 들어가는 말

호세아서는¹⁾ 주전 8세기 북왕조의 여로보함 2세 후반기와 그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호세아 5장 8절-7장 16절까지 자료들은 '시리아-에브라임 전쟁'(남 유다 아하스 vs. 북 이스라엘 베가)²⁾ 때에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것으로 간

1) Martin Rösel, *Bibelkunde des Alten Testaments* 6th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6), 86-88. 호세아서의 구조는 서술 양식적 측면에서 명확하다. 호세아 1-3장은 호세아의 가정드라마를 배경으로 메시지를 산출하고 있다. 이 부분은 내러티브로 일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반부인 4-14장은 내러티브가 아니며 호세아의 일대기적인 흔적이 자취를 감춘다. 이스라엘의 사회-종교적, 정치적 비행이나 과오들을 질타하고 있다. 때로는 12-14장을 독립된 단락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는 11장에서 '구원약속'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호세아 1-3장의 결혼 비유에 나타난 사회정치적 의도에 대해 박경식, "호세아의 결혼 비유에 담긴 사회정치학적 수사학 연구", 『구약논단』 24 (2018), 63-92를 참고하기 바란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처한 대외적 강소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호세아의 사회정치적 관점을 대변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특별히 예후가 맺은 앗수르와의 공신 조약 관계는 호세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요 문제이다.

2) 제임스 림버그, 『호세아-미가』 (강성열 역), (Interpretation: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61-62. 원제는

주된다. 호세아 5장 8-15절의 단락은 ‘기브아와 라마와 벳아웬에 경로나팔을 울리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이전 단락의 ‘제사장과 제의에 대한 문제고발’(호 4:4-5:7)³⁾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요청을 받은 앓수르의 티글랏빌레셀 III의 군대는 주전 733년⁴⁾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갈릴리 지역과 길르앗과 해변들을 점령⁵⁾하고, 732년에는 다메섹을 함락시킨다. 호세아는 주전 722년 사마리아가 함락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외로 추방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길한 예언자의 어조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제사장들(또는 선지자들)은 달콤한 말로 백성들이 참회⁶⁾하면 된다고 한다(호 6:1-3; 참조 4:6ff.). 그러나 그들의 참회의 부름에는 그 어떤 실제적인 ‘죄의식이나 범죄자백’이 결여⁷⁾되어있다. 그들은 참회에서 단지 늦어도 3일 후에는 뭔가 회복될 것이라고 한다. 이 ‘참회의 시’에 대해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으로 다음과 같이 반격하신다: “너희 인애(רַחֲמֵי)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호 6:4) 저들은 여호와와의 나타나심에 “새벽 빛(אֶרְבֶּבֶת) 같이 어김없나니”(호 6:3)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야훼는 그 빛은 치료의 빛이 아니라 “내 심판은 빛(אֶרְבֶּבֶת)처럼 나오느니라”(호 6:5), 즉 여명의 빛이

James Limburg, *Hosea-Micah. Interpretation* (A Biblical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8).

- 3) James L. Mays, *Hosea* (OTL; London: SCM Press, 1969), 65ff.
- 4) Hans P. Wolff, *Dodekapropheten I: Hosea* (BK 14/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1), xi.
- 5) John Day, *Hosea* (OB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71.
- 6) 스투아트(D. Stuart)는 ‘참회시’의 아이러니컬한 성격을 간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의 분석은 유용하다. 치료와 회복은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동을 컨트롤 할 수 없다. 그래서 본문의 회복의 시점과 방법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은 미래에 시대에 유효한 것이다. 참조 Douglas Stuart, *Hosea-Jonah* (WBC 31; Waco, Texas: WordBooks Publisher, 1987), 107-108. “It must be remain, however, that the song is an expression of hope. Israel does not control Yahwe. [...] when and how he would eventually heal and bandage are not specified. [...] The fulfillment of the song is thus implicitly reserved for another generation than that which heard Hosea sing it.”
- 7) 참조 Alfons Deissler, *Zwölf Propheten: Hosea-Joel-Amos*, 3rd (NEB; Neukirchen-Vluyn: Neukircher Verlag, 1992), 31. 볼프(H. W. Wolff)의 관찰에 따르면, 이 참회의 시에는 - 특별히 2-3절에서 - 가나안의 자연 종교신화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부재하거나, 잠자고 있는 신을 깨우거나 찾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Hans P. Wolff, *Dodekapropheten I: Hosea*, 151.

아니라 더욱 강력한 빛인 ‘심판의 빛’임을 말하고 있다.⁸⁾ ‘참회의 시’(호 6:1-4) 이후의 단락은 제의적 장치보다 인애(יְהוָה)를 원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호 6:5-11). 호세아 6장 5-10절은 6장 1-4절에 대한 야훼의 의제기에 이어서 ‘제사장들의 범죄’(“The Sins of the Priests”)⁹⁾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은 구제불능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다(호 6:11-7:2).

여기에서 주석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전치사 *ke* 구문¹⁰⁾이 사용된 곳이 호세아 6장 7절이다. 7절 부터는 그 앞의 6절의 ‘번제보다 인애를 원하는 야훼의 의도’에 반하였던 이스라엘의 실범죄들을 나열하고 있다.

וְהָיָה כְּאִם עָבְרוּ בְרִית שָׁמַיִם וָאָדָם הוֹדוּ 6:7

개정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노라

여기에서 사용된 *ke* ‘*ādām*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인명적인 것인가 아니면 지명적인 것인가 라는 부분이 논점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 이슈를 풀기 위해서, 먼저 호세아 6장 7절을 주석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히브리어 비교법¹¹⁾을 전

-
- 8) 림버그(J. Limburg)는 이 수사적 전략을 정확히 관찰하지 못하고, 호세아 6장 1-4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림버그와는 다른 시각이지만, 그 어떤 언어적 사회적, 역사적 고찰이 없이 호세아 6장 1절-7장 16절을 미래 은혜를 위한 권고(The Exhortation for Future Grace)라고 보는 가렛(Garrett)의 견해 역시 아쉬움을 남긴다(155f). 그는 이 구절을 역사적인 아담의 범죄로 보고 있다(162). Duane A. Garret, Hosea (NIC 19A;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7).
 - 9) Gary V. Smith, *Hosea, Amos, Micah*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01), 120. 앤더슨(F. I. Andersen)과 프리드먼(D. N. Freedman)은 이 구절이 이스라엘 내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무작위적 수집물이기보다는 단 하나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는 제안을 한다. F. I. Andersen & D. N. Freedman, Hosea (AB 24;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433, 435. 이들은 여로보암 II에서 므나헴으로 전환하는 기간 동안, 몇 왕들이 암살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왕하 15). John Day, “Pre-Deuteromic Allusions to the Covenant in Hosea and Psalm LXXVIII”, VT 36 (1986), 1-12; 5-6. 데이(J. Day)는 아담에서의 위법한 행위가 불가피하게 정권에 반대했던 베가의 쿠데타 사건이라고 논증한다. 열왕기하 15장 25절에 따르면 베가는 50개의 길르앗 도시들을 취하였는데, 아담 역시 길르앗 지역에 해당한다.
 - 10) 한글 음역으로 ‘케’(또는 ‘크’)라고 표기할 경우, 히브리어 문자 ק(코프)의 발음표기와 구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혼선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하의 모든 표기에서는 ‘라틴어식 음역’을 사용함을 사전에 밝혀두며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소고에 나오는 또 다른 (복합)전치사의 경우도 음역적 구별과 표기의 통일성을 위해 라틴어식 음역을 사용한다.
 - 11) 참조 하계삼, “참세기 5장 1-3절의 한글 번역과 기능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21 (2015), 40-73. 하계삼은 BHS

반적으로 개략하여 본 후, 다시 호세아 6장 7절의 제론들을 소개하고, 이곳에 사용된 *k^e* 용법이 무엇인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전치사 일반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비유법’(comparaison)¹²⁾이라고 한다. 비유에는 직유(simile)와 은유(metaphor), 환유(metonymy), 중의(hendiadys), 대유(synecdoche), 우의(allegory), 활유(prosopopoeia), 그리고 그 밖에 의성어(onomatopoeia), 의태어(mimic), 의인법(personification), 의물법(depersonification) 등이 있다.¹³⁾ 히브리어에서도 비유법과 유사하는 문장배열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법’(comparationis)이라고 부른다. 구문의 구성에서 볼 때, 국어에서는 후치사를 사용하여 비유를 표현하는 반면, 히브리어에서는 전치사로 이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어에서 비유법은 수사법의 영역으로 분류되지만, 히브리어 전치사는 문장의 구문론과 의미론과 연관이 있다. 우선적으로 ‘비교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전치사들의 종류¹⁴⁾와 그 기능들에 대한 간략한 고찰과 더불어 비교를 나타내는 전치사의 독특성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현행의 사전적 설명에서는 빈도수나 형식적인 단일성에 따라 전치사를 분류하여 각기 가정되는 ‘기본의미’와 그로부터 유추되는 ‘특별의미’들을 (빈도수

의 히브리 본문에 비추어 히브리어 전치사 *כ*(베/in)와 *אחרי*(케/after, according to)의 번역의 일관성 여부에 주목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의 연구는 어휘적(lexical)이고 문맥적인(contextual)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 12) 여기서 비유하는 주체를 원관념이라고 하고, 원관념에 비유되는 것을 보조관념이라고 한다.
- 13) 직유에서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이, -처럼, -듯이, -양, -듯, -모양으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반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유로, 유사성에 기초하는 것이 환유이다. 하나의 보조관념으로 두 가지 이상의 원관념을 표현하는 중의법이 있다가 하면, 원관념과 연관 있는 보조관념이 원관념을 대신 나타내는 수사법으로 대유가 있다. 우의법이란 원관념을 완전히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 제시하는 법으로, 속담, 격언, 우화를 말한다. 동물 아닌 것들을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수사법을 활유라고 한다.
- 14) Ernst Jenni, *Die hebräischen Präpositionen. Band 1: Die Präposition Beth* (Stuttgart: Kohlhammer, 1992), 13. 히브리어의 전치사의 숫자는 정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구약 성경에서 대략 20개의 ‘단순전치사’가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복합전치사’이다.

에 따라) 어휘적으로 나열한다. 그러나 의미론적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전치사들이 서로 어깨를 겨루어 의미영역을 다투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히브리어 전치사의 의미론적 고유성을 고려해 볼 때, ‘세 등급’¹⁵⁾으로 분류될 수 있다.

- 가장 보편적 의미: כ (베/-안에), כּ (케/-처럼), ל (레/-에게)

- 중급 특수화 - 지향축을 지남

수직축	על (알/위에)	תחת (타하트/아래)
시간축	לפני (랴브테/앞에)	אחרי (아하레/뒤에)
대각축	את (에트/곁에, 나란히)	בין (벤/사이에)
방향축	מן (민/부터)	אל (엘/향하여)
체휴	עם (임/더불어)	בלי (베리/없이)

- 강급 특수화

- עד (아드/-에 까지)
- ל (사비브 레/- 빙 둘러서)
- ל (밌마알 레/ 상단에서 부터)
- מתחת (밀타하트/ 하단에서 부터)

히브리어의 전치사들은 본래적으로 명사(nomina)이던가 일부 지시어적(deixis)¹⁶⁾인 감탄사(interjection)였다.¹⁷⁾ 이런 종류의 명사와 감탄사들은 문장 속에서 독립적인 소유격과 함께 부사로 등장하게 된다. 적어도 מן(민/-부터)이

15) Ernst Jenni, *Die hebräischen Präpositionen* I, 18-19.

16) 참조 Wilhelm Gesenius, *Hebräische Grammatik*, 24th (Leipzig: F.C.W.Vogel, 1885), §156, 376.

17) Carl Brockelmann, *Hebräische Syntax*, 2n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4), §105a, 95-96.

나 לָא(알/-위에)의 경우는 해당 동사의 어간을 항상 보존하고 있지만, 이들 전치사가 구문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한, 이번 소고에서는 그의 미는 사전적인 지식에 맡겨두기로 한다. 어원론적인 측면에서 독립적이며 본래 지시어적인 요소들로부터 파생된 히브리어 전치사로는 א(베/-안에), כ(케/-처럼), ל(레/-에게)가 있다.¹⁸⁾

히브리어 전치사 k^e는 많은 경우 명사적인 표현들(명사, 명사그룹¹⁹⁾, 수사, 대명사, 고유명사)과 연결되어 있으며, 종종 k^e와 명사 사이에 כול/כול(콜/모두, 전부)이 오기도 한다. 또한 문장의 부분적인 요소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가 비교의 대상이 될 때는 k^e와 결합된 관계사 אשׁר(아쉐르)가 사용되며 이를 통해서 그 문장은 '명사화'(Nominalisierung)된다. 이러한 이유로 אשׁר는 문장을 도입하는 '접속사'(Konjunktion)가 된다.

וַאֲשֶׁר בִּנְיָמִן כִּגְדָרָה כְּאִשֶּׁר אַבְלִים וְנָחִים: 욥 29:25b

개정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²⁰⁾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사역 그리고 나는 군대 가운데 한 왕과 같이²¹⁾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처럼 거
 처하였다²²⁾

18) 윗글

19) k^e + infinitivus constructus 의 형태는 자주 나타난다. 히브리어 부정사(절대형, 연계형)는 동명사적으로 이해 되기에, 명사그룹에 속한다. 주용 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124, 437: “부정사 절대형처럼 (§123 a), 부정사 연계형 (§49 b)도 (동작 동사에서) 동작이나 (상태 동사에서)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적 명사이다. 따라서 그 용법 중 어떤 것은 명사와 유사하고 또 어떤 것은 동사와 유사하다.” 이러한 까닭에 전치사 k^e는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명사적인 요소와 결합되는데, 관계사 אשׁר와 결합될 때는 “... 하는 것 + 처럼”으로 (부)문장(또는 구문) 전체를 명사화시킨다. 참조 Ernst Jenni, “Zur Semantik der hebräischen Vergleichsätze”, ZAH 2 (1989), 14-44: 16.

20) [개정은 역자의 언어적 사고의 범위에서는 이해하기가 용의하나, ‘군대 중에 있는 것’에서 ‘있는’이라는 표현은 마소라 어구 בִּנְיָמִן כִּגְדָרָה 에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군대 중에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 구문론 상 k^e malak + אשׁר + bag^e dūd 가 되어야 한다.

21) 두 번의 전치사 k^e 모두 ‘동일류’(Gleichartigkeit)를 함의하고 있다.

22) 욥기 29장은 운문체로 되어 있다. 산문체에서는 과거 사건의 단순한 연결은 ‘미완료 계속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태론적으로 wayyiqtol이다. 이 형태는 내려티브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에 반해 욥기 29장 25b에서는 접속사 ‘바브’+미완료 짧은 형인 w^e yiqtol (וַאֲשֶׁר)로 되어 있다. 참조 Rüdiger Bartelmus,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mit einem Anhang Biblisches Aramäisch (Zürich: Theol. Verlag, 1994), 82.

물론 k^e 의 일반적인 형태처럼, $k^e \text{ } \text{šar}$ 에 ל 이 삽입되어 비교의 의미가 아주 강화되기도 한다: $k^e + \text{ל} + \text{כִּפְּרָה}$ ('전적으로...인 것처럼')

전치사 k^e 의 기본기능은 아주 일반적이다. 즉, 그것은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것이다. 전치사의 용법 범주화에 유리하도록 기호적으로 표현하자면, $[x-k^e-y]$ 라는 의미론적(semantical/syntagmatic) 도식이 성립된다. 이 의미론적 도식은 위의 나머지 두 전치사(ב , ל)에도 적용될 수 있다. k^e 와 결합되는 y 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그것은 사람, 동물, 사물이 될 수 있고, 수량개념, 추상개념, 구문 등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k^e 는 '비교'라기 보다는 더 유연한 표현인 "병렬"("Parallelisierung")²³⁾로 소개되기도 한다.

k^e 는 위에 소개된 다른 두 개의 전치사와 기능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전치사 b^e 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분리된 대상을 동열(gleichgestellt)에 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²⁴⁾ 이로 통해서 두 개의 대상을 '대리적으로'(agentiv), '지역적으로'(lokale), '시간적으로'(temporale), '양태적으로'(modale) 동열에 위치시킨다.²⁵⁾ 이와 반면, l^e 는 3개의 전치사 중 가장 보편적인 관계를 연결 짓고 있다. l^e 에서는 '소유 관계'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대상을 비동렬적(ungleichgestellt)으로 나란히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²⁶⁾ l^e 의 이러한 기능으로 인하여 x 와 y 사이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되는데, 예를 들면 '소유주와 소유', '주는 자와 받는 자', '동작과 목적', '장소에서 방향' 등이 파생된다. 주 기능적 차원에서 두 전치사를 구분해 볼 때, l^e 는 분리적(diversiv)으로,

"Dort findet sich die PK-LF auch zum Ausdruck der GZ und die PK-KF zum Ausdruck des Präteritum."
(긴 형태는 동시성을, 짧은 형태는 과거를 표현한다)

23) Eduard König, *Historisch-Kritisches Lehrgebäude der hebräischen Sprache* II/1 (Leipzig: J.C. Hinrichs, 1895), 284.

24) Ernst Jenni, "Philologische und linguistische Problemen bei den hebräischen Präpositionen", Beat Huwyler & Klaus Seybold (Eds.), *Studien zur Sprachwelt des Alten Testaments* I (Stuttgart: Kohlhammer, 1977), 174-188.

25) Ernst Jenni, *Die hebräischen Präpositionen*, 20ff.

26) 윗글, 25ff.

b^e 는 통합적(unity)으로 작용한다.²⁷⁾

동렬과 비동렬은 서로가 두 대상에 관계하는 한 보충적인 관계에 있음으로 x 와 y 사이에 그 어떤 중립적인 관계를 가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중간지대에서 관여하는 전치사가 k^e 이다. 이것은 k^e 가 비교 가능한 두 개의 대상을 병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 k^e 는 부분적으로 동렬과 부분적인 비동렬을 표현함으로써 전치사 b^e 와 전치사 l^e 사이에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²⁸⁾ 그러므로 이 전치사는 x 와 y 사이에서 일치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거의 완전한 일치를 만들기도 한다.

1) 일치약화

ותשבנו שם כעשר שנים: 1:4

개정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십년쯤에

ESV They lived there about ten years,

일치약화의 예에서, 전치사 k^e 는 ‘대략 ... 정도’(about [= approximately])²⁹⁾라고 의역될 수 있다(참조 창 38: 24; 삼상 20:3).

2) 거의 완벽한 일치

וירושלים הבנויה בעיר שהבירה לה יחדיו: 122:3

개정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사역 예루살렘, 연결하여³⁰⁾ 짜 맞추³¹⁾ 성처럼 건설된 자여!³²⁾

27) 윗글, 20-31.

28) Ernst Jenni, “Zur Semantik der hebräischen Vergleichsätze”, 17.

29) Hol 3662.

30) “zusammen”(together), HALATI 388a.

31) II הבר, HALATI 267b은 시 122:3의 번역을 “fest zusammengefügt”(견고히 접합된)로 제안하고 있다.

32) 시편 122편은 ‘성전순례 노래’(시 120-134)에 속한다. 시편 122장 2절([개정]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은 이미 “여호와의 집”(1절)인 예루살렘을 의인화 하고 있다.

이때 ‘-와 같이’라고 표현되는 전치사 k^e 는 영어에서 ‘as’나 독일어에서 ‘als’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구문 상 ‘-와 같이’라는 전치사는 의미론적으로 ‘정확히-처럼’으로 의역될 수 있다.³³⁾ 일부 고전적 문법에서는 이 경우를 ‘충실의 카프’(Kaph veritatis)³⁴⁾라고 명명되었다(참조 욥 1:11).

룻기 1장 4절과 시편 122편 3절에서, 비교를 표시하는 전치사 k^e 는 상당히 광범위한 비교의 폭을 함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치사가 k^e 의 비교의 폭에 따른 정확한 기능을 알기 위한 조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3. 의미론적 범주($x-k^e-y$)에 따른 k^e 의 기능 구분

비교를 위한 의미론적 속성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 x 로 비교될 대상(무엇이...)이다. 둘째는 y 로 비교의 목적(...와 같이)이 되는 부분이다. 셋째는 의미론적 구성요소의 ‘제3의 참조점’(tertium comparationis, 점검질문: ‘어떠한 점에서?’)이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통해, 두 종류의 비교용법을 나타낼 수 있다. 비교용법은 ‘제3의 참조점’이 명시되지 않고 비교가능성을 말하든가 또는 비교점을 명시함으로써 비교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³⁵⁾이다.

k^e 가 단순한 ‘비교가능’(Vergleichbarkeit, ‘...같이’)일 경우 - 전자의 경우³⁶⁾-,

33) HALAT 433a.

34) GK §118x.

35) Ernst Jenni, *Die hebräischen Präpositionen*. Band 2: *Die Präposition Kaph* (Stuttgart: Kohlhammer, 1944), 35. 예니(E. Jenni)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가 전체의 약 1/4에 해당된다.

36) 참조 “+ infinitiv”, BDB 414. ‘비교가능성’은 보통의 경우 tertium comparationis가 명시되지 않아도 성립이 된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명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신1:10).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וַיִּבְרָא יְהוָה אֱלֹהֵינוּ אֶתְכֶם כְּכֹכָבִים הַיּוֹם וְכִי אֵין מִסְפָּר!)”에서 하반절을 순서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보라 너희는 오늘날 하늘의 별들과 같도다, 많음(규모)에 있어서’이다. 여기에서 tertium comparationis는 כְּ가 이다(참조 신 1:22; 28:62). 그 밖에 제3의 참조점으로는 ‘홍함’(וַיִּבְרָא, 창 41:19), ‘정함’(וַיִּבְרָא

k^e 는 명사문의 술어의 핵심부에 놓이게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k^e 는 ‘동일’ (Gleichheit, ‘...처럼’)을 의미하며, 양태조사로 사용된다. 이 때 k^e 구문은 하나의 완성된 문장에 부착되게 된다. 두 경우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은 단순하다.³⁷⁾ ‘어떠한 측면에서 일정정도 -와 같다’(in gewisser Hinsicht etwas wie)라는 뜻과 양립된다면 그것은 ‘비교가능’에 해당하고, ‘말하자면 -와 같다’(und zwar wie)라고 한다면 ‘동일’에 해당한다.

1) 비교가능(R 1)³⁸⁾

창 10:9b כַּנְמֶרֶךְ גְבוּר צִיד לִפְנֵי יְהוָה

개정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사역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강한 사냥꾼이로다

창세기 10장 9b절은 당시 사람들의 격언(속담)을 인용하고 있다. 이 문장을 구문적으로 볼 때 k^e 가 술어에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명사문이다. [k^e + 인명]의 경우 지금도 기억 속에 살아있는 유명인이거나 평판이 나쁜 인물에 대한 것이다. 그 밖의 경우를 살펴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창 48:20), 나발(삼상 25:26), 여로보암(왕상 16:3,7), 다윗(스 12:8a), 라헬과 레아(룻 4:11) 등이 있다. 이 경우 비교는 ‘존재 의존적’³⁹⁾으로 일어난다.

위의 경우와 달리, ‘전형과 실례’의 경우도 있다.⁴⁰⁾ 이 경우 비교된 대상은 일정한 거리에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근접한 현재적인 그 무엇을 말하고 있다. 아래의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된 ‘모세’는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례적인

↳, 출 24::10), ‘달콤함’(פִּינִימָה, 겔 3:3)이 나타난다.

37) Ernst Jenni, *Die Präpositionen* II, 35.

38) 윗글, 36-37. 이후 약어는 ‘R’은 Rubrik(단락/난)의 약자로 사용된다.

39) 독일어에서도 인명비교는 ‘존재 의존적’(..wesensabhängige Referenz)이다. Peter von Polenz, *Deutsche Satzsemantik: Grundbegriffe des Zwischen-den Zeilen-Lesens* (Berlin: de Gruyter, 1988), 122f.

40) 참조 Ernst Jenni, *Die Präpositionen* II, 42-43.

에에 속한다.

רָבִיא מִקְרָבָךְ מֵאֲחֵיךָ כְּמִנִּי וְקוּם לָךְ וְהָנָה אֵלֶיךָ 신 18:15

신18: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창세기 10장 9절과 신명기 18장 15절은 모두 ‘비교가능성’에 해당되는 비교 용법으로, [k^e + y]는 문장의 술어로 필수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2) 동일

동일성의 경우 내재적이든 아니면 어휘적이든 ‘제3의 참조점’이 나타난다. k^e가 포함된 문장은 때로는 부문장이 되거나 축약된 부대상황이 된다. 비교의 용법은 다양한 술어등급⁴¹⁾과 주문장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 동일(성)의 용법에 있어서, 비교는 1)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차원’(R 2-4)에서 이루어 질 수 있고, 또한 2) ‘사실과 생각’(R 5), 3) ‘사실과 언어’(R 6-7)로 분류될 수 있다. 1)의 사실적 차원비교는 두 문장의 ‘동일주어’의 경우(R 4)와 ‘비동일주어’(R 2-3)의 경우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두 문장의 일치가 시점일 경우(R 8), 비교가 분량적인 측면(R 9)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1) R 2: 동일한 종류: ‘x는 y같이 처리되다’

וְהַרְבִּיתִּי אֶת-יְרֵקֶךָ כְּכֹכְבֵי הַשָּׁמַיִם 창 26:4

개역 그리고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

41) 동사의 분류에 대해, 오민수, “동사 구문론과 결합기 이론으로 살펴본, 전도서 12장 9-10절의 해석학적 조명”, 『구약논단』 69 (2018), 142-171을 참고하기 바란다. 특별히 이 부분에 공헌한 학자는 벤들러(Z. Vendler)이다. Zeno Vendler, “Verbs and Times”, *Philosophical Review* 66 (1957), 143-166. 벤들러는 동사의 ‘동작상’(Aktionsart)에 따라 9가지 카테고리(속성-, 진행-, 시간경과, 장소이동-, 지각-, 동작-, 운반-, 접촉-, 소동동사)에 있는 모든 동사를 네 가지로 세분한다.

이 경우 ‘제3의 참조점’은 주문장의 술어를 통해 명시된다.⁴²⁾ 점검하는 간단 한 공식은 “x라는 지점은 비교의 목적지점인 y와 같은 동일한 상태(과정)에 있다.”이다. 야훼는 홍년이 들어 그랄에 거주하는 이삭에게 비교대상인 ‘씨’는 비 교목적인 ‘하늘의 별들’과 동일할 것을 약속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말한다.

(2) R 3: 모방(행동비교): ‘x는 y에 (따라) 일치하게 행(동)하다’

בְּחֹסֶד אֲשֶׁר-עָשִׂיתִי עִמָּךְ תַּעֲשֶׂה עִמָּדִי 창 21:23

개역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사역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대로 너는 나에게 행하라

이 경우 주문장의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비교문장에서 ‘모범’으로 소개된 행 동의 모방이다.⁴³⁾ 이러한 ‘모범’의 종류는 ‘개별적으로 수행된 것’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수행될 만한 행동’일 수도 있다. 창세기 21장 23절에서 아브라함 은 아비멜렉과 비골에게 자신이 행한 개별적 행동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여 동 일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R 4: 되풀이(상황비교): ‘x는 y처럼 처리되다’

וְלֹא-אֶפְקֹד עִיד לְהַכּוֹת אֶת-כָּל-חַי, בְּאִשֶּׁר עָשִׂיתִי: 창 8:21

개역 내가 행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치지 아니하리라

R 2와 R 3에서는 주문장의 주어와 비교문장의 주어가 다른 반면, R 4는 동일 한 주어에서 비교가 이루어진다.⁴⁴⁾ x는 y가 수행되었던 것처럼 수행된다. R 4 에서 술어와 주어는 변경되지 않는 반면, 시간과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

42) Ernst Jenni, *Die Präpositionen* II, 64: "Die Ausgangsgröße x ist im gleichen Zustand/Vorgang begriffen wie das Vergleichziel y."

43) 윗글, 84.

44) 윗글, 104.

한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야훼가 모든 살아있는 것을 치지 않은 것에 있어서
는 동일하지만, 그렇게 징계하는 시간과 목적은 차이가 있다.

(4) R 5: 실현(정신적 선취): ‘x는 y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행하다(되다)’

וַעֲשֶׂה-לִּי מִטֵּעָמִים כְּאַשֶׁר אֲהַבְתִּי 창 27:4

개정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사역 너는 내가 사랑하는 것⁴⁵⁾과 같은 별미를 만들라

R 2-4는 실제 활동상에 있었던 비교라면, R 5는 이제 정신활동(mentale Tätigkeiten)⁴⁶⁾이 비교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정신활동’이란 말은 집합적인 개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지각활동과 인지하고, 판단하고 의지하는 지적 활동을 포함한다. 비교는 관념적인 내용과 모사된 상황이(사실적 또는 비사실적) 동일하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현실관계와 시점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는 비동일성이 나타난다. 창세기 27장 4절에서 ‘사랑하는 것’과 ‘별미’는 동일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현실관계와 시점이 여전히 있다.

(5) R 6: 입증(동사적 선취: 고지): ‘x는 y가 말한 것처럼 행하다(되다)’

וַיִּהְיֶה כַּקֵּד אֶת-שְׂרָה כְּאַשֶׁר אָמַר 창 21:1

개정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R 6은 발화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비교되는 상황(행위, 진행, 결과)을 연

45) W. Allis, “אהב 'ahabh", *TDOT* 1 (2011), 99-118, 102-103: 사랑에는 내적인 감정이 있다. 사람은 애정이 가는 것에 몰두하게 되고(시 34:13[12]; 잠 6:13), 사랑하는 그것을 선택(신 7:7f; 10:15; 사 41:8; 시 78:68)하게 된다. 그리고 선택된 그것을 사랑스럽고(삼하 1:23) 가치있고(사 43:4) 고귀하게(사 43:4; 시 87:2f.) 여긴다. 구약에서 ‘사랑’(사랑하다)은 매우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104). “Peterson correctly emphasizes the community-related character of the concept of love and friendship in the OT.”(104)

46) Ernst Jenni, *Die Präpositionen* II, 117.

출한다.⁴⁷⁾ 보통의 경우 부문장인 *ka'šer*-구문(“말했던 것처럼”)에 발화동사 (*verbum dicendi*)가 온다. 축약되는 경우 *k^e*-구문(“그의 말에 부합하게”)이 나타난다. 창세기 21장 1절에 아훤이 사라를 돌보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하신 것이 일치 부합된 일이다. 후반절의 비교문에는 ‘발화동사’가 위치한다.

(6) R 7: 추종(동사적 선취: 요청): ‘x는 y가 요구한 대로 행하다’

כִּאֲשֶׁר דִּבְרַתְּ אֵלַי 창 27:19

개정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R 7은 주문장이 부문장에서 요구하는 행위의 요청에 응하여 긍정적으로 비교되는 경우이다.⁴⁸⁾ 보통의 경우 요청과 추종은 긍정적인 일치를 보인다. 그러나 주문장의 명령과 부문장의 행동의 경우, 그 일치에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민 2:33; 삼상 24:14; 예 2:20). 창세기 27장 19절의 경우, 예서는 아버지 야곱의 별미 부탁을 받고, 그대로 이행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R 6과 비교할 경우, 비교문에 발화동사를 사용한 것은 동일하나, R 7은 요청에 응한 것이고, R 6의 고지한 것을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동사 구문론적 차원에서, 양자 모두 *k^e* 구문에서는 qatal형을 사용하고,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을 표현하고 있다.⁴⁹⁾

(7) R 8: 시제적 용법(즉각적인 연속): ‘y가 개시되자 말자, x가 개시되다’

וַיְהִי כִּאֲשֶׁר שָׁמַע עֶבֶד אַבְרָהָם אֶת־דִּבְרֵיהֶם וַיִּשְׁתַּחוּ אֶרְצָה לַיהוָה: 창 24:52

개정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47) 윗글, 125; 참조 Ernst Jenni, “Zur Semantik der hebräischen Vergleichssätze”, 22f.; Schema “Voraussage-Verwirklichung”
 48) 윗글, 130.
 49) 참조 오민수, “고전히브리어의 노에틱적 적용과 그 해설 - 읍 1:1-5”, 『성경원문 연구』 40, 30-51.

사역 그⁵⁰)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들을 듣자마자 (곧)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였다

지금까지 소개된 k^e 구문에서 '제3의 참조점'은 다소 내용적으로 구별이 가능하였다. 비교되는 두 대상들은 의미표지⁵¹)를 공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주문장의 술어에서 전제('비교가능')되어 있든가 아니면 명시되어 포함('동시의 경우')되어 있다. R 8의 경우, k^e 구문의 시제적("temporal", ex. 창 32:32)이고 양적인 용법("quantitativ", ex. 출 12:37)을 다루고 있다.⁵²⁾ כִּנְיָוֹת/כְּנִיּוֹת/כְּנִיּוֹת의 시제적인 용법에서는 여러 다양한 독립적인 사건들이 진술되는 '시점'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게 된다.⁵³⁾ 그리고 이 시점이라는 공통분모는 '제3의 참조점'를 형성하게 된다. 창세기 24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들은 시점과 여호와께 엎드린 시점은 '제3의 참조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8) R 9: 분량적인 용법: 'x는 분량에 있어 y에 일치하다'

וַתֵּלֶךְ וַתִּלְךְ וַתִּלְךְ וַתִּלְךְ וַתִּלְךְ וַתִּלְךְ וַתִּלְךְ וַתִּלְךְ וַתִּלְךְ וַתִּלְךְ 창 21:16

개정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사역 그리고 그녀는 가서 활이 날아가는 거리 즈음에⁵⁴⁾ 마주보고 앉았다

R 6에서 이미 k^e 의 양적인 용법을 다루었다. '분량적 용법'에서는 분량적인 표지인, 수, 척도, 비율 등에 한정된다.⁵⁵⁾ '분량적 용법'이 사용되는 주요영역은

50) GK §115, 193f. 히브리어 명사 연계형에서, nome regens (st. cstr.) + nomen rectum (st. abs.)와 결합될 때, nomen rectum이 한정이 되었을 때, nomen regens는 한정되게 된다.

51) '아사셀은 가젤처럼 발이 가벼웠다'(삼하 2:18, R 2) 또는 '사자는 소처럼 집을 먹는다'(R 3, 사 11:7: 65:25b)의 경우,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생명체 / 가법다 / 빠르다 / 발 / 전진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 x는 y와 같은 특성이 부여된다. 후자의 경우의 공유부분은 [동물 / 풀을 먹는다 / 평화스럽게]이다. - 행위자체와 목적어는 주문장으로부터 추론한 주관적인 비교에 해당된다.

52) Ernst Jenni, *Die Präpositionen* II, 140.

53) 윗글

54) E. A. Speiser, *Genesis* (The Anchor Yale Bible 1: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155: "Heb. mṯhwy is quite probably dual, so that "two bow shots" may be better translation."

55) Ernst Jenni, *Die Präpositionen* II, 157.

수량부사이다. 이 용법에서 정확하고 사실적인 수는 표현되지 않으며 단지 추정되거나, 또는 언어-경제적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이유로 표현되지 않는다. 의역적으로 표현하면 “말하자면 / 대략적으로 / 대충 / ... 정도” 등이다. ‘분량적 용법’ 중 비교문에서 비례적으로 변경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 할 수록, 더욱 ... 하다’로 의역될 수 있다(참조 호 4:7,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 죄하니”; 출 1:12; 호 10:1; 13:6; 참조 시 90:11⁵⁶⁾).

(9) 히브리어 비교법 요약

- R 1: 비교가능성
- R 2: 동일한 종류
- R 3: 모방(행동비교)
- R 4: 되풀이(상황비교)
- R 5: 실현(정신적 성취)
- R 6: 입증(고지와 성취)
- R 7: 추종(요청과 성취)
- R 8: 시제(즉각적 연속)
- R 9: 분량

$x < y$ 라는 의미론적(semantical) 구조에서 요약해 보자. R 1은 y 가 술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R 2의 경우 x 와 y 가 그 목적지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R 3는 y 의 모범을 x 가 따르고 있기에 x 와 y 의 주어가 달라진다. R 4는 x 와 y 는 동일술어와 동일주어를 가지고 있다. x 는 y 처럼 수행되고 있으나, 수행되는 시간과 목적에서는 차이를 나타낸다.

56) :הַרְבֵּה וְהִתְרַבְּרוּ הַבָּנִים עִם אֲבוֹתָם׃ 시 90:11: [개정]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Hans-Joachim Kraus, *Psalmen 60-150* (BK 15.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78), 795f.; cf. BHS apparatus:11b [TOB] “Plus on te craint, mieux on connaît ton courroux!”(당신을 두려워할 수록 당신의 진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R 2-4는 실제 상의 비교라면, R 5는 지각, 인지, 판단 등 정신적 활동이 y에 놓이게 된다. R 6의 경우 y는 발화동사(qatal)를 사용한다. R 7은 R 6의 경우와 동일하나, R 6에서는 고지한 것을 성취한 것이라면 R 7은 요청한 것에 응한 것인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 R 8에는 ‘시점’이 x와 y의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R 9에서는 수, 척도 등 수량적인 것인 y부분에 놓이게 된다.

4. 호세아 6장 7절 재고찰

1) 엇갈린 이해들과 그 한계

“아담처럼”이란 구절에서, ‘아담’이 인명을 말하는가 아니면 지역명을 말하는가는 이전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이론들을 대략적으로 압축하여 요약하면 4가지 견해⁵⁷⁾가 있다.

(1) ‘아담’은 인명이며 첫 번째 범죄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담의 계약 파괴로 해석될 수 있다.⁵⁸⁾ 그러나 7b절의 אֲדָם (삼/거기)은 처격⁵⁹⁾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 (계약 파괴적인) 범죄사건이 있었던 ‘길르앗’(8a)과 세겜(9b)이라는 명칭과 함께 내용적 평행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문맥으로 볼 때, 아담을 인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57) 참조 Duane A. Garret, *Hosea, Joel* (NAC 19A), 162.

58) 이러한 견해는 LXX의 주석적 번역과 적지 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LXX는 마소라와 어절 구분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을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로 ‘인간’(인류)으로 번역하고 있다. αὐτοὶ δὲ εἶσιν ὡς ἄνθρωπος παραβαίνων διαθήκην ἐκεῖ κατεφρόνησέν μου :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 저기에서 그는 나를 경멸하였다.” LXX에서 ἐκεῖ (여케이/저기)는 이어지는 길갈과 세겜의 범죄사건을 지적하고 있는 듯하다. 팔머 로버트슨(O. Palmer Robertson)는 LXX의 “인간처럼”, “인류처럼”이란 뜻을 인간의 방식에 따라 - 인간적인 방식에 따라 - 계약을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7절은 JHWH는 창조를 통해,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과 관계를 세운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아담이면, 이 경우는 계약파괴란 금단의 열매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만일 ‘아담’이 ‘인류 총칭’이라면, 인류에게 주어졌던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든지 호세아 6장 7절은 창조시에 세워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약의 술어를 적용하고 있다.” 팔머 로버트슨, 「계약신학과 그리스도」(김의원 옮김),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00), 32-33. 원제는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New Jersey: P&R Publishing Company, 2000).

59) 참조 HALAT II, 1430a.

(2) ‘아담’은 지명이며 요단 강에 있는 도시⁶⁰⁾이다(참조 수 3:16). 문제는 이 지명이 구약에서 단 한 번만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곳에서의 역사적 행위 구약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가나안 정복 시절 바알브올(호 9:10; 민 25; 신 4:3) 사건과 비견되는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적인 행동이 ‘아담’에서 행해졌다는 보도는 오경 내에 없다. 아담에서 범죄행위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에 사건⁶¹⁾일 것이다. 물론 이 사건도 호세아에 언급된 다른 여러 사건들처럼 역사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다.⁶²⁾

(3) 본문보정: אָדָם(아담)은 אֲדָמָה(아드마)로 구문 교정되어야 한다.⁶³⁾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도시이다(참조 창 19:29). 이 견해는 고대 역본 상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방인 도시가 야훼와 맺은 그 어떤 언약도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호세아는 이미 11장 8절에 ‘아드마’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4) 본문보정: הִנֵּה는 “look”⁶⁴⁾을, וַעֲבַד는 “walk on”으로, 그리고 שָׁם은 “see”로 번역하고 있다.⁶⁵⁾ “아담(אָדָם)은 동요르단의 도시 아담이기 보다는 아다마(הַאֲדָמָה, dirt)의 변형된 표기로 보는 것이 훨씬 그럴적하다(수 3:16). [...] 그들은 내 언약을 진흙처럼 짓밟았다.”⁶⁶⁾ 그러나 친족어를 동원한 본문교정은 언어학적인 근거가 희박하다. ‘보정적 변경’은 항상 가설적이기 때문에, 종종 그 변

60) M. A. Eaton, Hosea (Fearn: Christian Focus, 1966), 108.

61) Hans W. Wolff, *Dodekapropheten 1: Hosea* (BK 14/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1), 154.

62) 호세아는 북왕국의 지리에 능통하였다. 사마리아(7:1; 8:5-6; 10:5, 7; 13:16), 세겜(6:9), 벨엘(4:15; 5:8; 10:5; 12:4), 길갈(4:15; 9:15; 12:11), 길르앗(6:8; 12:11), 다불(5:1), 아골 골짜기(2:15), 애굽(8:3; 9:3; 11:11), 잇수르(5:13; 7:1; 8:9; 9:3; 10:6; 11:5, 11; 12:1; 14:3)를 언급하고 있다. 구약 역사서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사건들을 호세아와 독자들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3) 참조 Duane A. Garret, *Hosea, Joel*, 162.

64) de Moor, *UF* 1 (1969), 201-202.

65) Douglas Stuart, *Hosea-Jonah*, 111. 슈투어트는 우가릿어의 기대에 창의적이고 보정적인 독법을 말하고 있다.

66) 윌클. “אָדָם is far more likely a variant of אֲדָמָה “dirt” than E. Jordan city of Adam (Josh 3:16). [...] They have walked on my covenant like dirt.” (슈투어트의 본문에는 히브리어 모음표기가 없지만, 독자의 이해 편의를 위해 모음을 삽입합니다.)

경에 대한 여러 대안적 제안을 하기도 한다. 만일 그 어떤 개선안도 수용 가능하지 않을 때, 전수된 본문은 ‘부식’되었다는 확정이 남게 된다. BHS의 비평주(Apparatus)는 ‘케아담’(כֶּאֱדָם)이 아니라 ‘비아담’(בִּיאָדָם)으로 독법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본문의 필사과정에서 ‘바브’와 ‘카프’는 앓시리아 정방향 문자 상에서 유사성⁶⁷⁾으로 인하여 혼동을 일으킨다는 것에 근거한다(왕상 22:20, 참조 대하 18:19; Ketib-Qere, 왕하 3:24). 히브리어 본문 전수과정 중에 생겨날 수 있는 현상을 친족어를 도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7절만 특수한 예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 구절 역시 친족어를 살펴서 의미 교정을 해야 할 것이다.

(1)-(4)까지 독법제안을 살펴볼 때, ‘아담’은 ‘인명’이기보다는 지명이라는 것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인명인가 지명인가 혼동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전치사 *ke*의 용법일 것이다. 물론 ‘비아담’(בִּיאָדָם)으로 바꾸어서 보정적(conjectural)으로 독법하면 가장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 역시 가장 주관적인 철자 중에 하나이다.⁶⁸⁾ 이전 2세기의 연구(17-18세기, Cappellus, Clericus, Houbigant, Glassius, Michaelis, Oort)⁶⁹⁾에서 수많은 본문보정을 제안하였지만 대부분의 불필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문변경은 ‘본문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다.’라는 것에 합의(Konsens)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치사 *ke*의 용법 내에서 해결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67) Emmanuel Tov, *Der Text der Hebräischen Bibel: Handbuch der Textkritik* (Stuttgart: Kohlhammer, 1989), 203-204. 원제는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Bible: An Introduction* (The Biblical Encyclopaedia Library IV; Mosad Bialik: Jerusalem 1989).

68) 윗글, 294. 본문보정의 주요 주제는 아니지만, 유형론상 철자법 변경의 사례들의 증언본문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한편의 사본학에 관련된 논문을 소개한다. 참조 김동혁, “콰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역사에서의 철자 및 음운 유형론”, 『구약논단』 23 (2017), 356-383.

69) S. Glassius, *Philologiae Sacrae* (Amsterdam 1709); J. D. Michaelis, *Deutsche Übersetzung des AT mit Anmerkungen für Ungelehrte* I (Göttingen 1772); H. Oort, *Textus Hebraici emendationes quibus in VT Neerlandice vertendo usi sunt A. Kuenen, I. Hoozkass, W.H. Kusters, H. Oort* (Leiden 1900).

2) 호세아 6장 7절의 ke 용법과 그 해석

6:7 הָמָּהּ כְּאַדָּם עָבְרוּ בְרִית שָׁם כְּגֵרֵי כֵּן:

개역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노라

사역 그러나 그들은, 아담에서처럼, 계약을 위반⁷⁰⁾하였다;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충
실치 못하게⁷¹⁾ 행동하였다.

(1) 동사구문론적 해설

7절은 we-x-qatal 로 6절과 대조(contrast)⁷²⁾시키고 있다. 즉 여호와께서 제사(חֲזָק)가 아니라 인애(חֶסֶד)를, 번제(עֹלוֹת)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דָּעוּת)을 원하지만, 그들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동사구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7a절과 7b절은 비접속구문(asyndesis)⁷³⁾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정보/사건의 진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7a절의 사실을 7b절에서는 재(부연) 설명하고 있다. 동사구문론적(Verbalsyntax)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6장 7a절과 7b절은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고, 계약을 위반한 것(7a)과 불충실하게 저버린 것(7b)을 병행하여 말하고 있다. 전후반절 모두, 주어는 3인칭 남성 복수로, '그들'이다.

70) פָּרַח(아바르/pass over, Hol 6030).

71) Seth Erlandsson, "בָּגַדְתָּ: בִּגְדָהּ", TDOT 1 (1977), 470-473. "It is used when the OT writer wants to say that a man does not honor an agreement or commit adultery, or breaks a covenant or some other ordinance given by God. [...] *baghadh* can be used in connection with faithlessness in marriage, violation a promise, and deserting one's legal partner and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some else. The object of faithlessness can be the wife (Ex. 21:8) or the husband (Jer. 3:20)." (470) 호세아 5장 7a절은 7b절과 관련하여 בָּגַדְתָּ(바가드/treat faithlessly, Hol 934)를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번역하고 있다. 호세아에서 '바가드'는 성적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창세기 2-3장 아담의 불순종을 '성적 이미지'로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담 언약의 파기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2) 참조 오민수, "고전히브리어의 노에틱적 적용과 그 해설 - 욥 1:1-5, 30-51; "동사 구문론과 결합가 이론으로 살펴본, 전도서 12장 9-10절의 해석학적 조명", 142-171.

73) Rüdiger Bartelmus,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199-210.

(2) 전치사 구문 ‘아담처럼’ 해설

그렇다면 전치사 구문 ‘아담처럼’을 분석하여 보자!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계약을 위반하였다”에서 아담을 ‘인명’으로 상정해 본다면, R 3: 모방(행동 비교: ‘x는 y에 일치하게 행동하다’)이 된다. R 3에서 x는 단지 y가 했던 그대로 모방하고, x와 y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y가 동일시제(삿 7:5; 민 22:4)이거나 한 시제 앞서기(삼상 6:6; 잠 24:29) 마련이다. R 3의 다른 예를 살펴보면, “너는 그 민족들의 가능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창 19:31)이다. ‘그 민족들의 가능한 행위’(הַמַּעֲשִׂים הַנּוֹכְחִים)와 x의 주어 ‘너’와 y는 주어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단지 그 행태에 있어서 - 가능한 행동 - 닮은 꼴이 나타날 뿐이다. 또 다른 실례로 설계에 따른 제작을 들 수 있다.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굵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모양대로’] 만들어(וַיַּעֲשֶׂהוּ כְתַבְנִית אִישׁ) 집에 두게 하며”(사 44:3) 여기에서도 역시 x와 y주어는 불일치 하지만, 양자의 동일성은 תְּבַנִּית(타브니트/form, shape, image; Hol 9009)로 명시되고 있다.

호세아 6장 7a절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비교구절들(창 19:31; 사 44:3)과는 달리, 호세아 6장 7절은 선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계약을 위반하였다’에서 *k* 구문(“아담처럼”)은 부사적(adverbial)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주어가 x와 y에 사용되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설령 다른 주어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담’이 창세기 3장의 고유명사로서 인물 ‘아담’인지 아니면, 일반명사로 ‘사람’이나 ‘인간’을 의미하는 말인지 구분해야 하는 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LXX⁷⁴⁾는 ‘아

74) LXX(αὐτοὶ δὲ εἰσιν ὡς ἄνθρωπος παραβαίνων διαθήκην)의 독법은 마소라와 단락구분을 달리하고 있다. LXX 구문을 역번역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כְּאָדָם / הָאָדָם כְּבָרְי כְּרִית / הָאָדָם ‘아담’을 집합명사로 생각하여 칼 원료 남성 복수 동사 כְּבָרְי(아베루)와 일치시키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παραβαίνων는 히브리 동사 כְּבָרְי를 현재능동분사로 독법하고 있다. 이것이 사본의 전수과정에 생겨난 실수(Fehler) 인지 대본(Vorlage)의 차이인지 가능하기는 어렵다. LXX의 이독은 이뿐만이 아니다. (7b) ἐκεῖ κατεφρόνησέν μου;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경멸하였다.” 히브리어 동사 כְּבָרְי(바가드)에 함의된 성적 모티브를 완전히 제거하여 유희시켰다(참조 Seth Erlandsson, “כְּבָרְי *bāghadh*; כְּבָרְי *beghedh*”, *TDOT* 1 (1977), 470-473: 470).

담'을 일반명사인 ἄνθρωπος(안트로포스/사람, 인간, 비인칭주어)⁷⁵⁾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 이보다 후대의 고대 역본인 VUL은 Adam으로 인명인지 지명인지 해석의 여지는 열어두고 있다.

두 번째 경우, R 4: 상황비교(x는 y처럼 처리되다)이다. 이 경우 주문장과 비교문장의 주어와 술어는 일치하게 된다. 여기서 '아담'은 어떤 상황으로 상정된다. 전치사 *ke*는 처격을 함의하는 경우가 있다(사 28:21a,21b; 시 95:8a,8b). 이 때 화자가 구체적 지명을 지적하는 것은 '이전의 사건인데, 청자들에게 알려졌던 정황'을 상기시키고 있고 그것이 현재 되풀이되었음을 돌연히(schlagartig) 지적한다.⁷⁶⁾ 이 경우 [*ke* +지명]은 단지 '지역'(beth local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개별 실례'이며, 이 개별실례와 이후의 현상(사건)을 비교하고 있다. 호세아 6장 7a절은 다음과 같이 의역된다; '그러나, 그들이 계약을 파기하였다. 아담(city)에서 그들이 파기했던 것처럼' 화자는 도시 아담에서의 반역한 이들과 화자의 청자들을 동일화시키며,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⁷⁷⁾

(3) 통사론적 해설

R 4(상황비교: 되풀이)용법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인애와 야훼를 아는 것을 원하는 것'(호 6:6)에 반하는 상황을 7절에서 구문론적 대조기법(contrast)으로 통해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에 잘 부합된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상하반절의 마소라 구문의 평행적 구조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75) Gemoll 71.

76) Ernst Jenni, *Die Präpositionen* II, R 49, 116.

77) Ernst Jenni, "Zur Semantik der hebräischen Vergleichssätze", 28: "[...] verändert sich im Hauptsatz der Zeitbezug und (bei aktiven Handlungen) das Objekt, während die Handlung als solche und das Agens unverändert bleibt." ("주문장에서 시간관계와 [능동적 행동일 경우] 목적은 변경된다. 반면, 그러한 행동과 동작 주는 변하지 않은 채로 있다.")

(전치사)목적격	동사	치격	casus pendens	
בְּרִית	עָבְרוּ	כְּאֵרָם	וְהָמָה	6:7a
בְּ	בָּנָוּ	אֲשֶׁר		6:7b

casus pendens의 경우 구문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돌출시켜, 이 문장의 topic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⁷⁸⁾ 즉, 화자인 ‘그들’의 패역의 실태를 부각시키며 이를 논제로 삼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적은 그들이 최근의 범법행위는 중전의 아담(city)에서 배역의 반복이라는 것을 통렬하게 주지시켜 주고 있다. 호세아 6장 7절-7장 2절은 실로 “배역의 지형도”(A Geography of Treachery)⁷⁹⁾를 나열하고 있다.

6. 나오는 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노라”(호 6:7). “아담처럼”에서 ‘아담’이 인명적인가 아니면 지명적인가 논의들이 이어져왔다. 구절 해석적인 여러 제론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석에 초석이 되는 문법(히브리어 전치사 *ke*)에서 출발하여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전치사 *ke*를 의미론적으로 구분하여, 9가지 용례로 나누었다. R 1: 비교가능성, R 2: 동일한 종류, R 3: 모방(행동비교), R 4: 되풀이(상황비교), R 5: 실현(정신적 성취), R 6: 입증(고지와 성취), R 7: 추종(요청과 성취), R 8: 시제(즉각적 연속), R 9: 분량. 그리고 이들 용례 사이의 의미론적 차이는 “3. 의미론적 범주($[x-ke-y]$)에 따른 *ke*의 기능 구분, 2)동일, (9)히브리어 비교법 요약”에서 정리하였다. 그리고 다시금 호세아 6장 7절의 연구들을 재점검하며, 재론들을 요약하여 보았

78) Walter Groß, *Die Pendenskonstruktion im Biblischen Hebräisch* (ATS 27; St. Ottilien: EOS Verlag, 1987), 38.

79) James L. Mays, *Hosea* (OTL; London: SCM Press, 1969), 99.

다. (1)고유명사인명 ‘아담’, (2)도시명인 ‘아담’, (3)본문보정(지명 ‘아담’→지명: ‘아드마’), (4)본문보정(형용사로서 ‘아다마’-dirty). (1)의 경우 7b의 처격(כַּשֵּׁ)과 그 후에 이어지는 ‘배역의 지리적 장소들’과 일치하지 않았고, (2)의 경우 역사적 기록이 미비하였다. (3)과 (4)의 본문보정의 경우, 사본학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호세아 6장 7a절이 첫째, 동사구문론적으로 비접속사(asyndesis) 구문으로 연결되어있었다는 점, 둘째, 전치사 *ke* 용법적으로 R 4: 되풀이(상황비교)’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사론적인 입장에서 *casus pendens* 구문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관찰하고, 본절의 언급된 ‘아담’은 지명임을 명확히 하였다.

7. 참고문헌

- 김동혁, “쿰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역사에서의 철자 및 음운 유형론”, 「구약논단」 23 (2017), 356-383.
- 박경식, “호세아의 결혼 비유에 담긴 사회정치학적 수사학 연구”, 「구약논단」 24 (2018), 63-92.
- 오민수, “고전히브리어의 노에티적 적용과 그 해설 - 욥 1:1-5”, 「성경원문 연구」 40 (2017), 30-51.
- 오민수, “동사 구문론과 결합가 이론으로 살펴본, 전도서 12장 9-10절의 해석학적 조명”, 「구약논단」 69 (2018), 142-171.
- 제임스 림버그, 「호세아-미가」 (강성열 역), (Interpretation;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4), 61-62. 원제는 James Limburg, *Hosea-Micah Interpretation (A Biblical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8)*.
- 주용-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원제는 Paul Joüon-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Subsidia*

Biblica 27).

팔버 로벗슨, 「계약신학과 그리스도」(김의원 옮김),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00). 원저는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New Jersey: P&R Publishing Company, 2000).

하계상, “창세기 5장 1-3절의 한글 번역과 기능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21 (2015), 40-73.

Allis, W., “אָהַב־בְּ, 'āhabh”, *TDOT* I (2011), 99-118.

Andersen, F. I. & Freedman, D. N., *Hosea* (AB 24: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Bartelmus, Rüdiger,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mit einem Anhang Biblisches Aramäisch* (Zürich: Theol. Verlag, 1994).

Brockelmann, Carl, *Hebräische Syntax*, 2n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4).

Day, John, “Pre-Deuteronic Allusions to the Covenant in Hosea and Psalm LXXVIII”, *VT* 36 (1986), 1-12.

Day, John, *Hosea* (OB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Deissler, Alfons, *Zwölf Propheten: Hosea·Joel·Amos*, 3rd (NEB;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2).

Eaton, M. A., *Hosea* (Fearn: Christian Focus, 1966).

Erlandsson, Seth, “בָּגַדְבִּי bāghadb; בִּגְדִי begbedb”, *TDOT* I (1977), 470-473.

Garret, Duane A., *Hosea* (NIC 19A;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7).

Gemoll, Wilhelm, *Griechisch-Deutsches Schul- und Handwörterbuch*, 9th (München: Oldenbourg Schulbuchverlag, 1989).

Gesenius, Wilhelm, *Hebräische Grammatik*, 24th (Leipzig: F. C. W. Vogel, 1885).

Groß, Walter, *Die Pendenskonstruktion im Biblischen Hebräisch* (ATS 27; St.

www.kci.go.kr

- Ottilien: EOS Verlag, 1987).
- Holladay, William L.,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GrandRapids, Michigan: Eerdmans, 1971).
- Jenni, Ernst, “Zur Semantik der hebräischen Vergleichssätze”, *ZAH* 2 (1989), 14-44.
- Jenni, Ernst, *Die hebräischen Präpositionen*. Band 1: *Die Präpositionen Beth* (Stuttgart: Kohlhammer, 1992).
- Jenni, Ernst, *Die hebräischen Präpositionen*. Band 2: *Die Präposition Kaph* (Stuttgart: Kohlhammer, 1944).
- Jenni, Ernst, “Philologische und linguistische Problemen bei den hebräischen Präpositionen”, Beat Huwyler & Klaus Seybold (Eds.), *Studien zur Sprachwelt des Alten Testaments I* (Stuttgart: Kohlhammer, 1997), 174-188.
- Koehler, Rudwig & Baumgartner, Walter,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I-II* (Leiden: Brill, 2004).
- König, Eduard, *Historisch-Kritisches Lehrgebäude der hebräischen Sprache* II/1 (Leipzig: J.C. Hinrichs, 1895).
- Kraus, Hans-Joachim, *Psalmen 60-150* (BK 15.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78).
- Mays, James L., *Hosea* (OTL; London: SCM Press, 1969).
- Rösel, Martin, *Bibelkunde des Alten Testaments* 6th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6), 86-88.
- Smith, Gary V., *Hosea, Amos, Micah*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01).
- Speiser, E. A., *Genesis* (The Anchor Yale Bible 1: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Stuart, D., *Hosea-Jonah* (WBC 31; Waco, Texas: WordBooks Publisher,

1987).

Tov, Emmanuel, *Der Text der Hebräischen Bibel: Handbuch der Textkritik* (Stuttgart: Kohlhammer, 1989). 원서는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Bible: An Introduction* (The Biblical Encyclopaedia Library IV; Mosad Bialik: Jerusalem 1989).

Vendler, Z., "Verbs and Times", *Philosophical Review* 66 (1957), 143-166.

von Polenz, Peter. *Deutsche Satzsemantik: Grundbegriffe des Zwischen-den Zeilen-Lesens* (Berlin: de Gruyter, 1988).

Wolff, Hans W., *Dodekaproheton 1: Hosea* (BK 14/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1).

검색어

호세아

아담

전치사 카프

동사구문론

비접속사 구문

Hosea 6:7; ‘like Adam?’ or ‘as in Adam?’: Based on Semantic Usage of The Hebrew Preposition Ke

Minsu Oh

Lecturer at Chongshin University

Kiel University, Dr. Theol.

Hosea 6:7, “But like Adam they transgressed the covenant; there they dealt faithlessly with me”(ESV). The phrase “like Adam”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a personal name or a local term. Until now, scholars suggested very different ideas: (1) Adam as a proper name, (2) Adam as a city name, (3) the ancient city Admah on the base of a textual emendation, and (4) ‘dirty’ on the base of a textual emenda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researcher takes the usage of the Hebrew preposition *ke* as his starting point. Its usage could be divided to nine rubrics. R1: comparison, R2: similarity, R3: imitation, R4: situational repetition, R5: mental realization, R6: announcement and fulfillment, R7: demand and fulfillment, R8: temporal use (immediate sequence), and R9: quantitative use. According to a philological argument, the relevant prepositional use of Hosea 6:7a should be definitively ascribed to R4. Also, this conclusion

www.kci.go.kr

can be asserted by verbal- syntactical (asyndesis) and syntactical (casus pendens) analyses.

Keywords

Hosea

Adam

the preposition *k*²

verbal syntax

asyndesis

- 투고일: 2018년 12월 31일
- 심사일: 2019년 2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2월 12일

www.kci.go.kr